



75
YEARS

Celebrating
our commitment
to children

또 하나의 나 우리

Summer 2012_Vol.59

www.plankorea.or.kr



행복을 주는 사람



한번쯤은 꼭 해보고 싶다고 생각하다가도 주변에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며 슬그머니 생각을 지우곤 했습니다. 다른 이들의 해외 봉사 활동을 보면서 제안에서도 그런 열망이 솟아 오르다가도 말도 통하지 않는 낯선 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하는 마음에 슬그머니 내려놓기도 했습니다. 그런 여러가지 복잡한 생각을 안고 인도네시아 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남편과 함께라는 생각에 든든했지만 그곳에서 저의 미약한 도움이 얼마나 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까 조금은 두렵기도 했습니다.

국내선으로 갈아타고 또 차로 4시간을 달려 겨우 도착할 수 있었던 램방이라는 마을에서 저는 두 명의 아이들과 특별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장애아동에 대한 특별한 교육과정이나 특수교사가 없어서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매일 학교 주변을 맴돌던 아이 바스코로, 그리고 외양간에서 엄마와 단 둘이 더부살이 생활을 하면서도 애써 환한 웃음을 보여준 효녀 프리안티.

이 아이들을 만나고 저는 여전히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물질적인 지원만으로 당장에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들, 아이들의 교육과 성장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부족한 인식과 태도, 그리고 이들의 삶을 둘러싼 열악한 시스템과 같은 문제들이 생각보다 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냥 아이들의 삶을 방치해 버리기에는 그곳에서 제가 보았던 그들의 환한 미소가 제 마음을 계속해서 잡아 당깁니다.

누군가가 제게 분명하게 말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그리고 여러분들의 작은 관심과 정성으로 그 아이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요. 우리가 나아졌던 것처럼 저들의 삶도 나아질 수 있다고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바로 저보다 먼저 아이들에게 사랑을 주고 계시는 플랜코리아의 후원자 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저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나눠 주시는 따뜻한 마음을 통해 아이들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삶이 변화될거라고...

전미선 드림



또 하나의 나 우리

Summer 2012_Vol.59
www.plankorea.or.kr

‘또 하나의 나 우리’는

플랜코리아가 전하는 아이들의 소중한 꿈입니다.

플랜은 UN 경제사회이사회 협의 기구로서, 75년의 역사를 가지고 국제적인 신뢰를 인정 받아온 국제아동후원단체입니다. 현재 한국을 비롯해 미국과 영국, 일본 등 20개 후원국으로 구성된 플랜은 종교, 정치, 국적을 초월해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50개국의 5,650만 명 이상의 어린이와 가족들에게 교육, 의료보건, 식수위생, 생계지원, 아동권리보호, 긴급구호 등의 영역에서 종합적인 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플랜코리아는 플랜인터내셔널의 한국지부입니다.



4



6



12



20



21



CONTENTS

- 04 지구촌을 간다 I _ 플랜코리아 김혜현
- 06 지구촌을 간다 II _ 후원자 노신옥
- 08 우리는 플랜가족 _ 후원자 이지영 가족
- 10 나눔의 행복 _ 한국국제협력단 민관협력사업
- 12 Photo Essay _ 플랜 75주년 생일파티
- 14 우리 가족을 소개합니다
- 16 세네갈 빈곤퇴치사업
- 18 플랜, 세계를 걸어가다 _ 니제르
- 19 Plan Board

플랜 NEWS

- 20 플랜코리아 소식
- 21 플랜 지구촌 소식
- 22 플랜과 함께하는 분들
일시 후원금, 긴급재해 후원금,
특별 후원금, 신규 어린이 결연 후원자

꿈을 품은 아이들, 사랑으로 비추다

방문을 일주일 앞두고 갑작스럽게 들려온 쓰나미 소식. 다행히 인명피해도 없고 방문해도 안전하다는 소식이 들려와 주춧하던 방문 준비를 서둘렀다. 순탄치 않은 여정은 공항까지 이어졌다. 안개로 가득한 인천공항. 이른 아침 모여 하염없이 지연되는 출발을 기다리며 시작부터 지치진 않았는지 일행들의 표정을 살폈다. 하지만, 전날 원고 마감으로 밤을 새고 왔다는 기자도, 이른 아침 엄마를 찾는 아이를 달래느라 애를 태운 전미선, 박상훈 부모도 걱정과는 달리 모두 기대 가득한 얼굴이다. 괜한 걱정을 했나 보다.

6시간이 넘는 비행에 또 다시 1시간을 국내선을 타고 또 차로 3시간을 달려 그렇게 먼 길을 돌아 인도네시아 렘방의 작은 마을에 도착했다. 평화로운 산속에 살고 있는 아이들은 외지에서 방문한 외국인이 신기한지 연신 핸드폰 카메라를 들이대며 사진을 찍어댄다. 여기서는 누구든 한류스타가 되는구나, 우스갯소리를 내뱉으며 쑥스러움을 감춰 보지만 반겨주는 아이들이, 그리고 나를 한류스타로 만들어주는 아이들이 고맙다.

몰래 사진을 찍고 도망가는 아이들 사이로 양쪽에 친구들을 거느리고, 과묵하지만 당당한 눈빛을 하고 있는 열살 바스코로를 만날 수 있었다.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는 청각장애와 언어장애로 바스코로는 매일 보는 익숙한 사람

들 외에는 대화가 쉽지 않은 아이다. 하지만 그런 그 역시도 여느 아이들처럼 학교에 가서 공부도 하고 친구들과 뛰어놀고 싶어하지만, 남들과 조금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인이라는 주홍글씨를 가슴에 단 채 많은 기회로부터 소외된 채 살아가고 있었다. 어차피 특수 교사가 없는 학교에 가도 수업에 따라가지 못할테고, 친구들에게 놀림감이 될 거라며 학교에 보내지 않는 엄마는 다니지도 못하는 학교에 매일 가는 아들이 그저 안쓰럽기만 한 모양이다.

그래도 바스코로는 매일 학교에 간다. 친구들이 모두 수업할 때는 운동장 한 켠에 앉아 수업이 끝나기만을 기다린다. 그렇게 간절한 바스코로의 바람을 이루어주기 위해 전미선 씨와 우리는 교장선생님을 찾았다. 아이의 상황과 열정은 충분히 이해하나, 바스코로를 제대로 돌보아 줄 장애 아동 전문 교사가 없어 받아줄 수 없다는 교장 선생님. 하지만, 바스코로가 얼마나 공부 하고 싶어하는지, 그리고 지금이 아이에게 얼마나 중요한 기회인지, 전미선 씨의 끈질긴 설득에 교장선생님은 힘들게 바스코로의 입학을 허락했다. 습기 가득한 끈적한 교무실 속, 끝이 나지 않을 것 같았던 긴 시간 대화였지만 속이 시원해지는 결과를 얻었다. 우리



는 바스코로가 앞으로 더욱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공부방을 만들어주기로 했다. 서울에서 정성스레 준비해간 학용품을 하나 둘씩 꺼내자 바스코로가 큰 소리로 웃기까지 한다. 난생 처음 가져보는 책상과 학용품에 눈을 떼지 못하는 아이의 모습에 덩달아 나에게도 기쁨과 동시에 알 수 없는 슬픔이 함께 밀려온다. 바스코로의 공부방은 동네 꼬마들이 모두 몰려와 구경하는 동네 명소가 되었다. 바스코로의 어깨가 으쓱해진다. 그래, 그렇게 기죽지 말고, 언제나 당당한 바스코로가 되기를, 마음속으로 힘껏 응원하고 아쉬운 작별을 했다.

외양간 한 칸 작은 공간에 엄마와 단둘이 사는 프리안티. 매일 물을 길기 위해 한 시간 이상을 걷는다는 이 착한 소녀는 늙은 엄마의 일을 돕기 위해 멀리 떨어져 기숙사에서 지내야 하는 중학교로의 진학을 포기했다. 매달 들어가는 교재비와 기숙사비를 낼 형편이 안 되는 것도 이유지만, 하나뿐인 늙은 엄마를 두고 갈 순 없었다. 초등학교 때는 제법 공부를 잘해 지금도 가끔 동네 꼬마들에게 공부를 가르쳐주는 것이 즐거운 프리안티를 위해 작은 공부방을 만들어 주었다. 혼자서라도 계속해서 공부할 수 있기를 바라며 준비해간 중학교 교재들과 학용품으로 책꽂이와 서랍을 채웠지만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었던 안타까움만이 책상 위에 덩그러니 남아 있는 것 같았다. 떨어지지 않는 발길

을 주춤하자 프리안티가 환한 미소로 오히려 우리를 위로했다. 행복해지는 것이 소원이라며 모두의 마음을 먹먹하게 했던 소녀는 지금 오히려 우리를 위로하고 있다.

아이들 모두와 밝은 얼굴로 인사를 하고 돌아섰지만 왠지 모르게 미안한 마음이 남는다. 한국에 돌아와 우리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함께 동행한 전미선 박상훈 부부 역시 아이들의 삶의 직접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도움을 주길 원했다. 플랜 인도네시아와 함께 고민하며 추진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산골 마을 학생들을 위한 통학 버스 프로젝트이다. 버스도 다니지 못하는 멀고 소외된 마을의 아이들을 중학교로 데리고 갈 그 버스는 그들에게 진정한 희망버스가 될 것이다. 전미선씨 부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어찌면 그 아이들이 포기하고 있었던 기회의 문이 열리게 되는 걸지도 모른다. 버스 안에서 아이들은 어떤 미래와 어떤 희망을 꿈꿀까? 우리가 선물하는 것은 작은 버스 한대지만 그 버스 안에서 인생의 크고 작은 산을 넘을 수 있는 힘과 용기 그리고 지혜를 배울 수 있기를,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함께 했던 사람들의 바람과 기대를 잊지 않기를 기대하고 또 바라본다. 



낯선 곳에서 매우 특별한 만남

캄보디아에 가는 결정보다 아버지와 함께 여행을 한다는 것이 나에게서 결정하기 더 어려운 일이었다. 그리고 첫 해외 여행을 아버지와 하게 된다는 부담감과 기대감은 캄보디아 공항에 내리자 밀려오는 습한 공기와 뒤섞여 나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나와 생긴 모습도, 쓰는 말도 다른 사람들, 후덥지근한 날씨, 전혀 새로운 바깥 풍경... 모든 것이 신기하고 어지러울 뿐이었다. 하지만 내가 이곳에 온 목적, 소크네와 만난다는 기분 좋은 설렘을 안고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 나는 소크네에게 줄 선물을 만지작거리며 첫만남을 기대했다.

오전 11시 반쯤 버스 정류장에서 플랜 캄보디아 직원을 만나 곧장 소크네가 살고 있는 담바에 지역으로 갔다. 집에 도착하자 소크네의 가족과 친척 그리고 마을 어린이와 주민들의 따뜻한 환영 인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고, 손님을 맞이하는 그들의 풍습대로 정성스럽게 차와 코코넛을 대접 받았다.

소크네는 귀엽고 어여쁜 숙녀였다. 하지만 여섯 살 꼬마에겐 처음 보는 우리가 낯설게 느껴지는게 당연하겠지. 잔뜩 겁을 먹은 소크네는 한참을 울었고, 내 손을 잡고 눈을 마주치기까지 꽤 많은 시간이 걸렸다. 잠시 동안 우리는 서로의 가족을 소개하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소크네와 가족, 그리고 마을 아이들에게 준비해 간 선물을 나눠 주었다. 바닥에 빙 둘러 앉아 그들과 이야기하며 잠시 생각에 잠긴 나는, 2년이라는 아직은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을 알아 왔지만 그래도 캄보디아라는 낯선 작은 마을에 나와 인연



을 맺은 누군가가 살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아이를 보러 쉽지 않은 길을 내가 찾아왔다는 사실이 신기하게 느껴지면서 동시에 잔잔한 감동이 찾아왔다.

소크네의 집을 떠난 후에, 마을에 있는 유치원(ECCD센터)을 방문했다. 오후에는 아이들 수업이 없어서 교실과 보건 및 식수 필터의 위생 설비 프로젝트, 화장실 등 플랜이 지역사회에서 지원하고 있는 프로젝트 시설들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는 캄보디아 보건부와 플랜의 지원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 보건소 내의 분만실도 방문하였다. 이 곳은 안전한 출산 및 산모와 신생아의 사망률을 낮추기 위하여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곳이며, 현재 후원 지역에 5개의 분만실을 설립했다고 한다. 이렇게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시설과 어린이들, 그리고 여성들을 위한 지원이 나와 같은 플랜의 후원자들의 크고 작은 도움을 통해 펼쳐지고 있는 것을 직접 보고 들으며 뭉치 모를 뿌듯함이 느껴졌다. 소크네가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마음껏 꿈을 펼칠 기회를 갖고 멋진 여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힘을 실어주고 싶었다.

소크네와의 만남은 짧았지만 여운은 오래도록 남았다. 내 생애에 결코 잊지 못할 만남이고 여행이었다. 이런 소중한 기회를 주신 플랜 직원 분들께 감사 드린다. 나중에 상황과 여건이 된다면 남자친구와 소크네 마을 학교에 작은 선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이런 내 마음이 변치 않고, 또 그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간다면 그런 기회는 내 스스로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소크네의 얼굴을 떠올리며 힘을 내어 본다.

소크네, 우리 또 만나자! ^^ 

Plan Family Interview

이지영 후원자

사회생활에 첫 발을 내딛기 시작한 20대의 어느해 만난 낯설었던 아프리카 소년이 흰칠한 키와 제법 어른스러워 보이는 체격을 가진 청년으로 성장했다. 10년이라는 시간은 그 소년에게뿐 아니라 여기 이곳에도 동일하게 흘러, 분주하고 치열했던 20대를 지나 새로운 가족과, 세상에 태어난 지 꼭 1년이 된 예쁜 딸이라는 변화가 찾아왔다. 첫 번째 후원아동을 졸업과 함께 떠나 보내면서 이지영 후원자는, 먼 곳에서 날아오는 후원아동의 반가운 소식을 기다리면서, 때로는 더 잘해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에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그렇게 세월이 흘렀다고 지난 십 년을 뒤돌아봤다.

2002년부터 후원을 시작하셨죠? 요즘이야 워낙 저희 같은 단체들의 활동이 전에 비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한 것이 되고 또 그만큼 관심도 많아졌지만, 사실 그때는 관심이 없으면 이런 해외아동 후원이나,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잘 몰랐을 것 같아요. 어떤 계기로 후원을 시작하시게 됐어요?

대학교 졸업하고 취직하면서 뭔가 뜻 깊은 일을 시작하고 싶었어요. 내가 일해서 번 돈의 일부는 누군가를 돕는데 사용했으면 했는데 매마침 텔레비전에서 플랜코리아 후원자셨던 어느 분의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후원하고 계신 아동의 국가도 직접 방문해서 만나는 모습을 보고 저런 것도 있구나! 제겐 신선하면서도 충격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아동 후원을 시작했어요.

한가지 일을 10년이 넘게 꾸준히 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은 일인데, 대단하세요.

책임감이죠. 내가 후원을 중단하면 그 아이가 당장 밥을 굶게 될 것 같았어요, 그때는.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도 혹시나 살다가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데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어떻게 되더라도 그 아이 인생은 나 대신에 꼭 책임져 달라고 그렇게 부탁하기도 했어요. 경제적으로 자리를 잡아가던 20대 때는 내가 갑자기 일을 못하게 돼서 돈을 못 내면 어떻게 하지? 그런 걱정 아닌 걱정이 늘 자리잡고 있었던 것도 같아요.

지난 10년간 후원자님 개인적으로도 이런저런 삶의 변화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결혼도 하시고, 새로운 가족도 생기고요.

그러게요. 후원 시작하고 나서 편지도 매달 쓰고 선물도 자주 보내줘야지(그때는 선물도 보내줄 수 있었으니까요) 그랬는데, 결혼하고 아기도 낳고 일하면서 키우다 보니, 후원금 안 밀리고 꼬박꼬박 내는 거라도 충실하자, 이렇게 바뀌더라고요.(웃음)

사실 후원자분들 중에는 통장에서 자동이체되는 것만 가끔씩 확인하면서 후원하고 있구나~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보고 싶다고 언제든지 쉽게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맘처럼 쉽게 편지가 써지지도 않고..^^ 조금 막연하실 수도 있죠.

그래도 결혼 전에는 자주는 못해도 책가방, 학용품, 여동생 나눠 주라고 머리핀 같은 것들을 보내 주기도 했어요. 그러면 또 하바두(에티오피아 후원아동)한테서 편지가 와요. 어느 날 우편함에 플랜 봉투가 꽂혀 있으면 너무 좋아서 집으로 뛰어 들어가면서부터 난리법석을 떨었어요. 엄마랑 같이 봉투 뜯어보고 사진 보면서 놀래고, 또 그림이나 편지 받을 땐 몇



번씩이고 읽고 또 읽고 하면서... 1년에 한번씩 꼬박꼬박 오는 성장보고서가 어찌나 고맙고 반갑던지. 축구를 잘한다 그래서 유럽 리그에 진출하는 건 아닌가 내심 기대도 했어요. (웃음) 하바두가 제 삶의 기쁨이고 활력소였죠..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10년간 후원해 온 하바두는 후원자님께 어떤 의미였나요?

마음만큼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는 못했지만 정말 가족같이 여기고 살았어요. 매년 새해에 달력을 받으면 가족 생일이나 일정들을 체크하거든요. 그때마다 한번도 빠지지 않고 하바두 생일을 달력에 적어놓고 축하해주곤 했어요. 한두 달 전에 미리 보내야 제 때에 도착한다고 하는데 놓친 적도 많죠. 그래도 지금까지 받은 사진만해도 스무장이 넘어요. 처음엔 귀여웠던 소년이 이젠 아프리카의 건장한 청년이 되어버렸더라고요. 졸업하고 제가 없어도 잘 지낼 수 있겠죠?^^ 그래도 아직 걱정되고 마음이 쓰여요.

후원아동이 졸업한다는 연락 받으셨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정말 가슴이 덜컥했어요. 어떡하지? 앞으로 어떻게 살까? 미안함과 걱정이 순간 밀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새롭게 후원을 시작하면서 시윤이 이름으로 친구를 만들어 주기로 했어요.

사회생활에 첫발을 내딛으면서 시작하셨던 후원이 졸업이라는 작은 열매를 맺었고, 이제 따님 이름으로 새롭게 후원을 시작하시는 거잖아요. 처음과는 느낌이 많이 다를 것 같아요.

너무 달라요. 부모가 돼서 아기를 키우는 입장이 되니까 사진에서 보이는 아이 얼굴에 난 작은 상처 하나하나까지 다 보이면서 걱정되더라고요. 지금은 어려서 모르겠지만 시윤이가 조금 더 크면 이렇게도 가족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어요. 같은 나이니까 함께 성장해가면서 많은 것들을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생 백세 시대잖아요. 앞으로 남은 인생은 시윤이, 그리고 클레어(필리핀 후원아동)를 키우면서 좀 더 보람 있고 남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싶어요.

새로운 아동이 졸업할 때까지 후원하시는 게 그전처럼 막중한 책임감을 지게 하는 건 아닐지 모르겠어요.

뭐 금방이더라고요.^^ 시윤이 커 가는 모습 보면서 클레어도 그렇게 키워 나가야죠.

저는 인연을 믿어요. 하바두 후원 시작 할 때도 그랬고, 이번에도 특별히 국가를 지정하지 않았어요. 다만 너무 멀어서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는 게 안타까워서 한번은 만나러 갈 수 있는 가까운 지역으로 부탁 드렸죠. 그래서 필리핀에 사는 클레어를 만난 거예요.

이 아이가 저에게 왔으니 책임져야죠.

“ **플린의 소식은 언제나 반가워요. 마치 오랜만에 만난 반가운 친구같이. 요즘 우편이나 전자메일이나 기분 좋은 편지 받을 일도 그리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더욱 플린에서 오는 편지에 대한 기대감과 반가움은 큰 것 같아요.** ”





KOICA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협력단 KOICA 민관협력사업 소개

우리의 꿈이 이루어졌어요!

세네갈 까올락의 케르 마바 디아코 지역 주민들에게 안전한 식수는 항상 고민거리였습니다. 마을에 오래된 우물이 있지만 건기에는 메마르기 일쑤였고, 우기에는 동물들의 배설물이 스며들어 마실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고민은 한국국제협력단의 식수 개발 사업을 통해 해소되었습니다. 한국국제협력단은 케르 마바 디아코 지역에 식수 타워를 세워 약 2천여 명의 주민들에게 안전한 식수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주민들은 식수 타워를 운영하기 위해 마을 운영위원회를 만들고, 식수 타워 및 펌프 관리를 위한 비용 마련을 위해 주민 모두가 합의해 수도세를 책정함으로써 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한 활동에 더욱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온 학교라는 선물

가나의 북쪽에 위치한 와 지역은 가나에서도 인포라가 부족한 지역으로 학교와 같은 교육 시설 또한 부족합니다. 시설의 부족과 함께 학부모들의 교육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학교에 가야 할 어린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데이비드도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학생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농사일을 하시는 부모님을 도와 일을 하던 데이비드에게 학교는 다른 세상의 것이었습니다. 마을에 학교가 생기고 데이비드가 학교에 다니게 된 것은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한국의 KOICA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전히 데이비드는 한국이 어디에 위치한 나라인지, KOICA가 무엇을 하는 단체인지 잘 모르지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자신에게 학교를 선물해 준 고마운 존재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KOICA와 플랜이 함께 합니다

국가	사업명	내용
 국제빈곤퇴거사업 세네갈	의료 보건 시스템 역량 강화 및 아동 건강 증진 사업	질병관리를 위한 약품 지원, 지역보건활동가 및 위생 전문가 역량 강화, 주민 대상의 질병예방교육 등 실시
 국제빈곤퇴거사업 부르키나파소	HIV/AIDS 유행 및 모자수직 감염 예방 사업	HIV/AIDS 모자수직 감염 예방을 위한 산전 검사 지원, HIV/AIDS 양성 반응 산모 대상 서비스 지원, 지역주민 대상의 인식 강화 및 예방 교육, 보건소 등 의료 서비스 기관 물품 지원 및 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
말리	미취학 아동 교육지원 및 지역사회 식수 지원 사업	미취학 아동을 위한 종합 교육 센터 건립, 2개 마을을 위한 식수 시설 설치, 주민 대상의 인식 강화교육, 시설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 운영
가나	자동차 기술 교육 센터를 통한 가나 청소년 역량 강화 프로젝트	청소년 기술 교육을 위한 자동차 교육 센터 건립 및 교육 과정 연구, 효과적인 실습실 지원을 통한 취업 기술 교육 지원
인도네시아	초등학교 건축을 통한 교육 환경 개선 사업	아동 친화적 학교 건립, 교사 역량 강화, 학교 운영을 위한 지역사회의 역량 강화

현재 진행중인 플랜-KOICA 협력 사업

한국국제협력단(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은 1991년 설립되어 한국 정부의 대외무상협력 사업을 전담하는 곳으로 우리나라와 개발도상국가와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를 증진하고 이들 국가들의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을 증진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국내초청연수, 전문가 파견, 해외봉사단 파견, 개발조사, 인프라건축 및 플랜과 같은 NGO를 통한 사업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플랜은 세네갈, 가나 이외에도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에 KOICA의 지원금을 통하여 보건, 식수위생, 교육, 생계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Plan's 75th The Biggest Children's Birthday Party

창립 75주년을 맞아 플랜의 전 후원국과 수혜국에서 어린이들과 함께 하는 행복한 생일파티가 벌어졌습니다. 지구촌 어린이들과 함께 한 75년의 역사가 앞으로 더욱 아름다운 나눔을 통해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플랜의 회원국 곳곳에서 열린 축하파티의 현장에 초대합니다!





도미니카



말라위



모잠비크



네팔



투고



브라질

서로 도움을 주고 받으며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것이 플랜의 바램입니다.

투고에서는 어린이들의 소중한 권리와 학교폭력, 그리고 성차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한 교육이 생일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여러 초등학교에서 약 9백 명의 어린이들이 초대해 그들이 배운 것들을 그림과 포스터로 그려보았습니다.

도미니카공화국의 플랜 사업지역에서 모여든 300명의 어린이들은 얼굴에 페이스 페인팅을 하고 준비된 다양한 이벤트에 참여하며 신나는 생일파티를 만끽했습니다. 모든 어린이들이 매일매일 이렇게 행복한 얼굴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말라위에서도 플랜의 75주년을 함께 기쁘하고 축하하는 파티가 벌어졌습니다. 많은 어린이들과 관계자들이 함께 한 자리에서 무엇보다도 어린이들이 즐겁고 행복해하는 다양한 공연과 스포츠 경기 등이 펼쳐졌습니다.

모잠비크의 어린이들은 75주년을 기념하며 과일나무를 심었습니다. 리고 고 마을의 학생들이 생활하는 자연 환경을 지켜주고 열매를 통해 먹거리도 제공해 줄 다양한 나무들이 어린이들의 꿈과 함께 무럭무럭 자라기를 바랍니다.

브라질하면 빼놓을 수 없는 축구경기가 브라질의 플랜 75주년 축하파티 현장에서 벌어졌습니다. 플랜 브라질의 사업지역 곳곳에서 모여든 어린이들이 함께 어우러져 축구를 하고, 우승팀에게는 영예의 플랜 75주년 기념 트로피가 주어졌습니다.

파라과이에서는 2천여 명의 어린이, 자원봉사자, 플랜의 직원들이 함께 모여 행복한 생일파티를 가졌습니다. 축하 무대에 선 어린이들의 노래와 장기자랑 공연이 이어지고, 소원을 적어 풍선과 함께 하늘에 띄워 보냈습니다. 모두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날이 꼭 오겠죠?

생일을 기념하는 75개 촛불에 불이 켜졌습니다. **네팔**에서는 75번째 생일을 축하하며 상징적인 의미로 직원과 마을 주민들이 헌혈에 참여했습니다.



투고

우리 가족을 소개합니다



동생과도 잘 놀아주고 책읽기를 무척 좋아하는 첫째, 호기심이 많고 밝은 성격에 친구가 많은 둘째, 아이들에게 매우 좋은 엄마이자 자상한 내 아내, 그리고 두 아이의 아빠이고 회사 생활로 많이 바쁘지만 가족과 더욱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하는 나. 이렇게 우리 가족을 소개해요.

한국의 대도시는 빌딩으로 둘러싸여 자연을 접하기 쉽지 않아요. 내가 어렸을 때는 동네에서도 개구리를 볼 수 있었지만 이제는 박물관에 가거나 차를 타고 멀리 시골까지 가야 겨우 개구리를 볼 수 있지요. 그래서 도시를 떠나 캠핑을 가면 매연이 많은 도시보다 별도 많이 보이고 새나 개구리 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아요. 우리 가족은 모두 캠핑과 수영을 좋아해요.

사반이 살고 있는 부르키나파소와는 많이 다르죠? 아내는 매일 아침마다 날씨를 확인하면서 부르키나파소와의 현재 온도를 알려주는데 40도가 넘는 날씨가 계속되는걸 볼 때마다 깜짝 놀라요. 이렇게 서로 다른 곳에서 떨어져 살고 있지만 건강하고 씩씩하게 잘 성장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가끔씩 받을 때마다 고마워요. 부디 계속 건강하게 잘 자라서 나중에 우리와 언젠가 꼭 만나게 됐으면 좋겠어요.

박기용 최은숙 박예준 후원자



아누쉬카 안녕? 한국의 5월은 가정의 달이라 해서 매우 소중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가족을 소개해 주고 싶어요. 우리 집 첫째 공주, 올해 중학교 3학년인 제 딸은 이소희예요. 아누쉬카와 나이가 비슷할 거예요. 둘째 공주는 중학교 1학년 이동하예요. 동하는 꿈이 선생님이에요. 셋째 왕자는 초등학교 4학년 이수성이고 축구를 무척 좋아해요. 마지막으로 나는 공무원이에요. 지금은 전남 순천시청 소속인 낙안면 사무소에 근무하고 있어요. 아이들 아빠는 교통사고로 4년 전에 하늘 나라로 갔어요. 힘들 때도 많지만 씩씩하고 예쁘게 자라주는 아이들이 예뻐요. 아누쉬카의 가족도 소개 해줄래요?^^

사람은 간절히 바라고 노력하면 언젠가는 이루어지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갖고 있는 신념이에요. 아누쉬카도 항상 밝은 웃음으로 건강한 생활하면서 하루하루 보내길 바래요. 그럼 안녕.

이윤숙 후원자



지난번 편지에서 얘기했던 올해 1월에 태어난 우리 아들 성현이를 사진으로 보여 줄 수 있게 되어 기뻐요! 플랜코리아에서 “우리 가족을 소개합니다” 라는 이벤트를 하고 있어서 오랜만에 멜라니아에게 우리 가족을 소개하게 되었네요.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한시도 가만있지 않고 요리조리 기어 다니는 성현이는 이제 조금씩 물건을 잡고 일어서기도 한답니다. 물론 벌써 멜라니아 사진도 보여주고 누군지 이야기도 해주었어요. 누나가 있어서 성현이도 무척 좋아하고 있을 거라 생각해요. 요즘은 틈이 날 때마다 육아에 관련된 정보들을 찾곤 해요. 엄마가 되는 길은 역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랑하는 멜라니아, 아무쪼록 잘 지내고 조만간 또 편지 보낼게요.

임근혜 김도영 후원자

우리 가족은 엄마, 아빠, 하람이 이렇게 세 식구야. 하람이는 노래 부르기를 좋아하는 25개월 남자아이야. 하람이에게 메리야같은 멋진 누나가 생겨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해. 우리 가족은 메리야를 한시도 잊은 적이 없어. 핸드폰을 열면 가장 먼저 나오는 얼굴이 너니까^^ 핸드폰 열며 "메리야 안녕! 오늘 하루 너에게 행복하고 기쁜 일만 가득하길 기도해", 그리고 밤에는 하람이와 잠자리에 들면서 "오늘 하루 피곤하진 않았니? 즐겁고 유쾌한 일 많이 있었니?" 라고 이야기해. 이미 넌 우리의 가족이 되었거든. 너로 인해 말라위라는 나라도 알게 되었어. 아프리카에 이렇게 많은 나라가 있을 줄이야... 고마워 메리야 앞으로도 쪽 너의 수호천사가 되어 네 꿈을 위해 기도할게. 꿈을 잃지 않는 하람이의 누나 메리야가 되어줘. 사랑하고 사랑한다!



김하람 후원자

안녕 핑키! 널 알게 되어 반가워. 너에게 보내는 첫 편지에 우리가족을 소개하게 되어 기쁘구나. 우리 부부는 5살 아들이 한 명 있어. 사진 속 모습은 개구장이 같지만 그래도 참 잘생겼지?^^ 핑키 네 사진도 받아 보았어. 귀여운 네 모습이 담긴 액자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매일 기도한다. 아프지 않고 밝고 건강하게 자라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잘 지내고 또 만나자!



정미숙 후원자

세이니, 너와 인연을 맺은 지 벌써 4개월이나 됐는데 처음으로 편지를 써보네~ 늦어서 미안해~! 우리 가족을 소개하자면, 나, 남편, 아들 유찬이 이렇게 3명이야. 나와 남편은 둘 다 은행에서 근무하고 있고, 우리 아들은 아직 4살밖에 안된 말쑥꾸러기고^^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내 자녀만이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도 사랑을 나눠주고 싶은 마음과 아직 어린 우리 아들이 그런 마음을 배워 갔으면 해서 후원을 시작하게 되었고 이렇게 널 만났구나. 유찬이도 이제 곧 저 멀리 아프리카에 예쁜 누나가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되겠지? 세이니 한국이란 나라에서 널 항상 생각하고 있는 가족이 있다는 거 잊지 말고 항상 행복하고 밝게 자라렴~



윤선경 후원자

안녕, 음파노! 너와 만난 게 벌써 3년 전인데 이제야 첫 편지를 쓰게 되어 미안해. 내 이름은 환하게 빛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음파노 네 이름은 무슨 뜻인지 궁금하구나. 나는 작년 가을에 결혼해서 현재 남편과 함께 새로운 가정을 꾸렸단다. 결혼식 사진을 함께 보냈는데 실제로는 사진보다 좀 더 예쁘단다^^ 나와 남편은 현대자동차라는 같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 이제 우리 부부가 함께 너를 후원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하고 있어. 음파노 너도 열심히 공부해서 꼭 원하는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어. 언제나 너의 행복을 위해 기도할게 음파노♡



김화영 후원자

후원 아동에게 후원자님의 가족을 소개해주세요.

홈페이지를 통해 편지와 함께 가족사진을 보내 주시면, 예쁜 편지지에 출력된 편지와 함께 후원자님의 가족사진과 플린십 스티커가 후원아동에게 선물됩니다.

7월 말까지 진행되는 이벤트를 놓치지 마세요!



세네갈 빈곤퇴치사업

작은 알약 하나의 기적



“숨이 붙어 있지 않은 아이를 업고 와서 아이가 아프다고 이야기하는 부모를 보면 나는 화가 난다”

빈곤퇴치지원사업을 위해 세네갈에 파견되어 근무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만났던 간호사가 해 준 이야기다. 조금 일찍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왔다면, 그들 주변에 어서 병원에 가 보라고 이야기 해 준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아이가 살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부모의 무지로 아이가 죽어간 것과 그런 상황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아이의 사망 통보뿐이라는 것이 화가 난다고 했다. 의료시설과 전문 의료진이 부족한 세네갈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병원이나 보건소를 찾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특히 질병에 대한 인식이 없다면 적절한 치료도 받기 어렵다.

이러한 의료 체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플랜은 세네갈 의료 보건 시스템 강화 및 아동 건강 증진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치료를 받기 어려운 현실에서 질병을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자 최우선이고 따라서 질병에 대한 인식이 낮은 주민들에게 보건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예방 교육을 진행하였다. 손 씻기 습관과 같은 간단한 노력을 통해 질병 예방이 가능하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알리면서, 각종 질병의 다양한 증상과 그러한 증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였다. 교육은 학교와 마을에서 진행되었는데 몇몇 학교에서는 수업 시간에 보건 위생 교육을 넣어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야기를 좋아하는 세네갈 사람들의 성향을 반영하듯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참여하는 사람들이 숫자가 점점 늘었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의 참여도 유도하였다. 어머니회를 통해 모기장을 배포하고 사후 관리까지 맡아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모기장을 통한 말라리아 예방 효과에 대해 알게 된 어머니회는 모기장 배포와 함께 설치를 하고 사용할 수 있게 도왔다. 이 결과 50% 미만에 이르던 모기장 사용률이 80%로 높아지게 되었다. 또 교육을 받은 어린이들이 보건 위생과 관련된 연극을 주민대상 교육 때 진행하기도 하였다. 현지어로 맛깔스럽게 연기하는 어린이들 덕분에 모든 사람들이 쉽고 재미있게 질병 예방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기생충 퇴치를 위한 구충제 지원 활동도 학교를 대상으로 진행했는데, 의료 지구 담당자들과 회의가 있던 어느 날이었다. 루가 지역 담당자가 페트병 3개를 들고 회의실로 들어와서 처음에는 현지에서 파는 주스라고 생각하고 한잔 마셔야겠다 생각한 순간 페트병을 가까이서 보고 깜짝 놀랐다. 지렁이 같이 생긴 기생충이 병 속 가득했기 때문이다.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 병속에 들어있던 약 50여 개의 기생충이 한 명의 초등학생에게서 나왔다는 것이다. 구충제 한 알이 아니었으면 이 학생의 목숨은 위태로웠을 거라는 담당자의 이야기에 나도 모르게 가슴을 쓸어 내리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초등학교 대상의 대규모 구충제 지원 활동을 통해 40%에 못 미치던 구충제 지원률이 88%에 이르게 되었고, 교육부와 연계해 매년 2회에 걸친 정기적인 구충제 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지역의 어린이들은 지속적으로 기생충 감염에 대해 예방과 치료 지원을 받게 될 것이다.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변하고 어린이들의 건강 상태가 개선되고 있지만, 죽은 아이를 업고 병원으로 가는 사람이 당장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인식 강화 교육과 적극적인 주민 참여가 지속된다면 작은 알약 하나를 통한 기적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생겨날 것이라 믿는다. 

- 1 빈곤퇴치사업을 통해 띠틈스 지역에 건립한 보건소
- 2 비정규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구충제를 투여하는 모습
- 3 손 씻기 습관화를 위해 마을에 배급한 도구들과 말라리아 예방을 위해 모기장을 나눠주는 모습
- 4 플랜의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보건소에서 상담과 처방을 받고 있는 주민



플랜의 50개 후원국은 다양한 문화와 인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후원국가들의 소개와 함께 플랜의 다양한 활동들을 소개합니다.

니제르 Niger



국 가 명	니제르 공화국 (Republic of Niger)
수 도	니아메 (Niamey)
인 구	약 1천 7백만 8천 839명 (2012.7 기준)
종 교	이슬람교 80%, 그 외 기독교 및 토착 종교
공 용 어	프랑스어
문 맹 률	71.3% (15세 이상)
평 균 수 명	46.2세
독 립 기 념 일	1960년 8월 3일
시 차	한국보다 8시간 늦음
플랜사업시작년도	1998년 (플랜은 니제르 내의 77개 지역사회에서 지역 개발 사업을 진행 중)

니제르의 오늘

니제르는 아프리카 중서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헬 사막 지대에 인접해 있다. 도시 인구는 5% 정도이며 15세 이상 문맹률은 약 71.3%(2005년 추산)에 달한다. 니제르에서는 최근 고용과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다. 니제르 인구의 90% 정도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가뭄이 들게 되면 주민들의 이주가 이루어지고, 노동력이 외부로 유출되면서 고용이 불안정해진다. 노동력 유출이 경제 발달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니제르는 서아프리카 내에서도 문맹률이 가장 높은 나라로 중학교 진학률은 해당연령의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평균 수명이 낮아 인구의 절반 가량이 15세 이하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정부 당국은 체계적인 교육 제도를 마련하고 학교 시설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니제르는 국민 보건 및 위생 환경이 열악하여 말라리아, 홍역, 설사병 등 간단한 치료를 통해서도 나올 수 있는 질병에도 쉽게 노출되어 있어 유아 사망률이 높은 편이다. 많은 원조단체들을 통해 전염병, 풍토병 등과 관련한 예방접종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도시에만 한정된 병원 시설과 부족한 의료진, 그리고 낮은 의료 수준은 여전히 니제르에 많은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

HOT ISSUE
서아프리카 사헬 지역 식량난

서아프리카 지역의 심각한 식량난으로 니제르 인구의 절반 정도인 7백만 여명의 사람들이 고통 받고 있다. 이러한 식량난은 기후 및 환경 조건 때문에 발생한다. 관개 농업이 발달하지 않아 수확량이 많지 않고, 들쭉날쭉하고 적은 강우량으로 인해 자주 가뭄이 들기 때문이다. 최근에 인근 국가인 말리의 쿠데타로 인한 말리 난민의 유입도 극심한 식량난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5세 미만 영유아들은 장기적인 영양 실조를 겪고 있으며,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망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플랜은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에 그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식량 공급을 위한 모금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들의 영양실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국 정부와 원조 단체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틸라베리 지역

학교 위생 개선	교사 및 학생 대상의 위생 교육 실시
학용품 지원	교보재 및 학습 기자재 지원
건강 보험	건강 보험 등록 장려 및 병원비 지원

도소 지역

안전한 식수 공급	우물 지원 사업
어린이 권리 인식 개선 캠페인	어린이 방송국을 활용한 권리인식 개선 프로그램

지구촌에 피어나는 작은 희망, 모든 여자아이들에게 힘을!



목동고등학교 2학년 박채린

학교-집-학원, 반복되는 하루하루가 계속되던 날, 나는 플랜코리아에서 하고 있는 Because I am a Girl 이라는 캠페인을 알게 되었다. 그저 호기심이 발동해 듣게 된 다른 나라 여자아이들의 이야기. 안타까웠고 그래서 더 믿기지 않던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였다. 개발도상국의 수많은 여자아이들이 단지 여자라는 이유로 겪어야 하는 아픔과 슬픔, 그들을 둘러싼 현실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된 우리는 더욱 체계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에게 도움을 전하고 싶어서 목동 고등학교에 "Hear Me" 라는 이름으로 동아리를 만들게 되었다.

그활동중하나로 지난 5월,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Because I am a Girl 캠페인을 알리고 또 10월 11일 세계 여자아이의 날 지정에 대한 축하와 홍보를 위해 인사동으로 향했다. 인사동 거리는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가족단위의 사람들과 연인, 그리고 외국인들로 붐볐고 그들에게 먼저 다가갈 말을 건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다. 특히 언어도 문화도 다른 외국인과 제대로 대화해 본 적이 없었던 우리는 과연 저들에게 이야기를 잘 전해 줄 수 있을까 두근거리고 떨렸다. 똑같은 티셔츠를 입고 피켓을 들고 서 있는 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은 힐끔힐끔 쳐다보았고 그야말로 떨리고 긴장되는 시간이었다.

우리가 준비한 활동은 Because I am a Girl 캠페인에 관한 간단한 O, X 퀴즈와 외국인을 상대로 세계 여자아이의 날을 설명하고 안내물을 나눠주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세계 여자아이의 날에 대한 소식을 알리는 것이었다. 준비해 간 문장을 머릿속으로 되뇌며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켰다. 상기된 얼굴로 처음으로 다가갈 어렵게 건넨 "Excuse me..." 를 시작으로 우리는 외국인들을 비롯해 저기를 오

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캠페인을 알리기 시작했다. 몇몇 분들은 어색해 하시며 우리를 피하기도 했지만 많은 분들이 웃으면서 우리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셨다. 우리가 하는 캠페인이 무척 멋지고 좋은 일이라며 격려와 응원을 해주시는 분들 속에서 점점 자신감을 찾아갔다. 사람들과 함께 사진도 찍고 한 사람에게라도 더 말을 걸고자 적극적으로 나서는 나 자신의 새로운 모습도 발견하면서 지금까지 맞볼 수 없던 뿌듯함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다.

되물림 되는 가난 속에서 벗어날 기회조차 없는 세계의 수많은 여자아이들을 우리조차 등돌려 외면한다면 누가 그들을 도울 수 있을까. 그들에게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아무도 그들의 외침을 듣지 못하게 되고 그들에게 영원히 설 곳이 없게 된다. 사람들의 작은 관심이 모여서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데 그냥 지나쳐 가는 사람들을 보며 우리는 앞으로 우리가 달려갈 길이 많이 남았다고 깨닫고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때까지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거리에 나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해진 우리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가 응원하는 세계 여자아이들에게 크고 작은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니 앉아서 쉬다가도 별떡 일어나게 되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우리는 자신감을 얻은 만큼 앞으로는 책임감을 가지고 더 준비된 모습으로 캠페인에 임하기로 다짐했다.

처음에는 단지 불쌍하니까 우리가 그들을 돕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많은 캠페인 활동을 하면서 오히려 많은 것을 배우고 얻는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고통받는 여자아이들을 위해 같이 마음을 모아 희망찬 변화를 만들어 가는 날을 기대한다.



한국중부발전, 인도네시아에 두번째 희망학교 착공

플랜코리아가 한국중부발전과 코이카가 함께 민관협력사업으로 진행하는 인도네시아 제2희망학교 건립을 위한 착공식을 가졌다. 인도네시아 자바섬 그로보강 지역의 응음박 마을에 건립되는 초등학교는 열악한 교육환경을 갖고 있는 마을에 유치원과 13개의 초등학교 교실, 도서관, 그리고 화장실과 식수시설이 완비되어 많은 어린이들과 인근지역 주민들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지에서 진행된 착공식에는 플랜코리아와 한국중부발전 임직원과 코이카 인도네시아 부소장 및 마을 주민들이 참석해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한국중부발전의 사회공헌활동으로 지원하고 있는 제1희망학교는 지난 5월 완공되었다.



이상네트웍스, 지구촌 희망 결연 후원 협약식

IT정보기술업체 이상네트웍스가 플랜코리아와 함께 해외 아동 희망 결연을 통해 지구촌 어린이들을 후원한다. 작년부터 국내 봉사활동을 시작으로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해 온 이상네트웍스의 임직원 80명은 베트남 어린이들과 일대일 결연 후원을 통해 꿈과 희망을 전하게 된다. 이를 위한 후원 협약식에서 이상네트웍스의 김봉수 대표이사는 개발도상국의 어린이들이 스스로 빈곤에서 벗어나 자립할 수 있도록 좋은 멘토가 되어주겠다고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다.



엔비아이제트와 희망나눔 지구촌 아동 결연 후원 협약

온라인 및 모바일 마케팅 컨설팅 회사 엔비아이제트가 임직원들과 함께 해외아동 결연후원을 진행한다. 협약식에 참석한 조원표 대표이사는 "단순한 아동 결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아이들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보여 줄 것"이라고 밝히며 해외 아동후원의 필요성에 대해 강의를 진행하며 전 직원들에게 결연의 의미에 대해 나누기도 했다. 엔비아이제트는 향후 10년 이내 대학생들이 가장 가고 싶은 회사 1위가 되겠다는 비전 아래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시한부 아동 정기 후원 등의 구체적인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다.



오상진 아나운서와 함께 한 첫번째 THE 좋은 사람들

플랜코리아 후원자들과 홍보대사가 함께 하는 "THE 좋은 사람들"의 첫번째 모임이 지난 4월 오상진 아나운서의 플래니스타 위촉과 함께 진행됐다. 플랜의 후원자이자 다양한 캠페인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홍보대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스타 후원자를 지칭한 플래니스타로 첫번째 임명된 오상진 아나운서는 특히 이날 참석한 후원자들과 함께 플랜 75주년을 축하하는 기념 세레모니도 함께 했다. THE 좋은 사람들을 통한 후원자와 홍보대사의 만남은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이다.



건국고등학교, 캄보디아에 두번째 우물 건립 지원

지난해부터 플랜코리아를 통해 캄보디아 우물펀프를 지원하고 있는 부산 건국고등학교가 두 번째 우물을 건립한다. 학생회가 주체가 되어 진행하는 더불어 사는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뜻이 있는 학생들과 함께 자발적으로 모금한 후원금이 깨끗한 식수를 공급받지 못하는 캄보디아 씨엠펜프 지역에 우물펀프를 선물하게 되었다. 지원되는 우물펀프를 통해 15개 가정의 60여 명의 주민과 어린이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에 주어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건국고등학교는 추가적으로 태국 소수민족 여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프로그램에도 지원하기로 했다.



EXR-플랜클럽 발대식

플랜코리아의 대학생 봉사단 플랜클럽이 EXR의 사회공헌 활동인 "EXR 55 러브 캠페인"에 함께 참여한다. 이를 위해 EXR-플랜클럽 발대식을 갖고 지난 5월5일 어린이날 열린 서울시 어린이 디자인 창의력 캠프에 참여해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 외에도 EXR-플랜클럽은 낙도지역의 학교를 방문해 도서관과 도서관 정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또한 캄보디아와 베트남의 프로그레시브 스쿨을 방문하는 등의 활동에 참여할 예정이다. EXR-플랜클럽은 플랜코리아와 함께 1년간 지구촌 나눔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는 동시에 EXR과 함께 국내외 소외된 어린이들을 위한 자원 봉사 활동을 진행한다.



KBS 나눔 더하기 대축제

나눔을 통해 더불어 사는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KBS 나눔 더하기 대축제가 지난 4월 여의도 공원에서 진행됐다. NGO를 비롯한 총 50여 개 나눔 단체가 참여해 각 부스 내에서 다양한 이벤트와 홍보 활동,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현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나눔의 즐거움과 가치를 전달했다. 플랜코리아는 Because I am a Girl과 출생등록 캠페인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는 한편, 지구촌 어린이들에게 보내는 희망 메시지, 플랜 75주년 축하 메시지 등을 적어 희망트리에 걸고 인증샷을 찍어주는 이벤트를 통해 시민들과 함께 나눔문화를 확산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서아프리카 사헬지역 식량난

사헬지역에서 십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식량난에 직면하고 있으며 백만여 명의 어린이들이 영양실조로 고통받고 있다. 불규칙적으로 내리는 비로 인한 농작물 수확량 감소, 곡물가 상승 문제와 함께 말리의 정부 군과 50만 명 이상의 난민이 이상의 난민이 발생하면서 인접국인 니제르, 부르키나파소 등에 심각한 식량부족이 닥쳤다. 플랜은 영양실조 검사 및 치료, 식량과 식수 지원, 영유아와 산모 건강관리와 같은 구체적인 긴급대응 프로그램의 진행과 동시에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로부터의 복구와 재건을 위해 지역사회에 다양한 농작물 생산을 위한 소규모 금융 대출, 가뭄에 잘 견디는 종자 배급, 농업기술 강화 등의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방글라데시 여성, 플랜의 여성캠페인을 지지하며 에베레스트에 오른다

방글라데시 여성 최초로 에베레스트 등반길에 올랐던 나샷(Nishat Majumdar)이 지난 5월 말 세계 최고 봉에 도달했다. 이미 탄탄한 등반 이력을 가진 나샷에게 세계 최고봉인 8,848미터 정복은 지금까지 중 가장 큰 시도였지만 플랜의 Because I am a Girl 캠페인을 지지하며 전세계 여자아이들을 위해 정상에 오르겠다는 굳은 결심으로 결의를 다졌었다. 이번 그녀의 도전을 통해 방글라데시뿐 아니라 전세계 많은 여자아이들과 플랜의 글로벌 캠페인에도 큰 힘이 실어지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프리카 말라리아 예방을 위한 노력

전세계적으로 말라리아로 사망하는 인구의 90% 이상이 아프리카에서 발생한다. 모기장 보급과 더욱 적극적인 노력만으로도 2015년까지 3백만 어린이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플랜 서아프리카 지역 소장은 말했다. 성인에 비해 면역력이 떨어지고, 취약한 상황에 놓이기 쉬운 어린이들을 위해 플랜은 아프리카 지역의 파트너들과 함께 살충모기장의 보급과 말라리아 예방에 대한 인식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케메룬에서는 전국민의 절반 이상 인구에 모기장 보급을 목표로 플랜 사업지역에 5백만 개 이상의 모기장 지원을 하고 있으며, 부르키나파소 전역에 760만여 개의 살충모기장을 보급하는 등의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세계 거리 아이들의 날

전세계적으로 백만여 명의 어린이들이 거리에서 생활하며 반복되는 빈곤과 폭력, 학대 속에 노출되어 있다. 플랜은 지난 4월12일 세계 거리 아이들의 날을 맞아 열악한 거리에서 생활하며 교육을 비롯한 기본적인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어린이들에 대한 전세계적인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이들의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하기 위한 정부와 국가적 차원의 접근과 많은 사람들의 지원을 호소했다. 플랜은 2002년부터 상담지원센터를 통해 거리의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며 구걸과 노동이 아닌 기초교육과 기술훈련의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오고 있다. 또한 이곳에서 생활하는 어린이들을 통해 또 다른 거리의 아이들이 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으며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플랜은 거리 아이들 컨소시엄 (Consortium for Street Children)의 회원단체로서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재난위기 상황에 대한 어린이 지원

최근 기후변화보고서에 의하면 어린이들은 재난위기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존재이다. 이에 플랜은 재난상황 대응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어린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요약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재난상황의 감별과 대비를 위해 지역사회를 교육시키고, 응급조치와 대피 기술과 관련된 훈련과 관련해 어린이들의 다양한 역할들을 제시하고 있다. 플랜은 재난발생이 잦은 국가들에서 구호활동 뿐 아니라 재난발생 방지와 대비에 대한 훈련과 중요한 정보들을 전달하고 교육함으로써 재난상황에 가장 취약한 어린이들의 보호와 권리보장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조혼 방지를 위한 어린이들의 노력

개발도상국 여자아이들의 3분의 1은 18세 이전에 결혼을 한다. 교육의 기회를 빼앗고 어린나이에 임신과 각종 폭력을 겪게하는 조혼은 이들을 빈곤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주된 원인이 된다. 또한 올바른 교육을 받지 못한 여자아이들의 문맹률은 높아지고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기회는 멀어지게 된다. 플랜 방글라데시에서는 청소년 클럽과 함께 조혼방지를 위해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12세 소년 올리는 조혼을 강요당하는 여자아이들을 돕기 위해 친구들과 함께 활동하면서 자녀들을 조혼시키려 하는 부모를 찾아가 설득하고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시켜가는 과정에 앞장서고 있다.



여러분~ 플랜샵의 새로운 상품을 소개합니다.

무더운 여름이 성큼 다가왔어요. 혹시 시원한비닷가로의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여행중에도 가볍게 들고 다닐 수 있어 더 편리한 스포츠타월을 사용해보세요.
초극세사 재질로 되어 있어 부드럽게 닦이고 잘 마릅니다.
플랜 75주년을 기념하여 제작된 스티커와 캠페인노트를 사시면 캠페인엽서를 증정합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가장 가치있는 소비! 플랜샵과 함께하세요 ^^



플랜 데코스티커
3,000원



플랜 캠페인 노트
3,000원



플랜 스포츠타월(분홍/하늘)
각 10,000원



6월 5일은 세계 환경의날!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 여러분도 함께 동참하실 수 있어요~

[환경을 생각하는 플랜샵]



[30%할인] BIAAGo코백
19,600원



[20%할인] 플랜하켓백(4종 중 택1)
8,000원



[후원아동선물]

후원아동에게 편지와 함께
선물하실 수 있어요!!



플랜 데코 스티커
3,000원



플랜 엽서세트(8장)
10,000원